

세상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고향 찾아가는 길에 잠깐 들른
어느 아름다운 한 여로(旅路)일 뿐입니다.

- 성전스님 -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A 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필수 영역과 함께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8개 주요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뤄졌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응급의료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경과 김동억 교수팀 연구 성과, 국제저명학술지 테라노스틱스 표지 논문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 연구팀이 하버드 의대 Eng Lo 교수 및 Cenk Ayata 교수 그리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성주현 교수 등과 함께 수행한 ‘Inhibition of nitric oxide synthase transforms carotid occlusion-mediated benign oligemia into de novo large cerebral infarction’ 연구 결과가 국제저명학술지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impact factor 12.4) 최신호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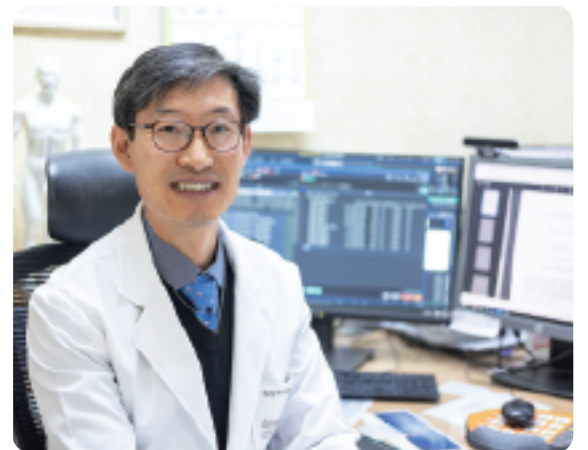
김동억 교수는 5년에 걸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같은’ 경동맥이 막히더라도 (그리고 막힌 경동맥을 우회하여 뇌혈류를 공급하는 측부혈관의 발달 정도가 비슷해도) 환자에 따라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 하더라도 병변 크기와 중증도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를 규명했다. 김동억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뇌경색의 발병 및 중증도는 얼마나 운에 좌우되는가’라는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며, “SDMA 측정을 통한 뇌경색 발병 위험 예측 및 산화질소 공여제를 이용한 뇌경색 예방/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가 한의약 의료 표준화와 과학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동일 교수는 난임, 임신오조, 산후풍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월경통 한의 치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확한 치료 근거를 확립하는 등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건물 붕괴 대비 재난대응 훈련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월 27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건물 붕괴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재난대책위원장 김진영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교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병원 내 일부 붕괴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재난 지휘 본부 설치와 부서별 재난 대비 행동 절차를 설명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병원 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4년도 의무기록 작성 우수과 및 우수의’ 시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월 13일과 14일 ‘2024년도 의무기록 작성 우수과 및 우수의’를 선정해 시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우수 진료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의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오성진 전공의가 선정됐다. 일산한방병원에서는 침구과 한유정 전공의와 한방내과 이진영 전공의가 우수의로 선정됐다.



묘전스님,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노인요양시설 묘희원의 원장인 묘전스님이 지난 1월 8일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에 발전 기금으로 1천만 원을 보시했다.

묘전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이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비의로 실천의 중심도량이 되길 기원하며 정년 퇴임을 기념으로 회향하게 되었다”며 기부 소회를 밝혔다. 2014년에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보시한 바 있으며,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교병원의 발전을 위한 자비 보시행을 실천해 왔다.